

# 불황에도 외제차는 두배 늘었다

## 올들어 광주 569대·전남 271대 등록 혼다·폭스바겐 등 지역 시장 '야금야금'

올 들어 광주지역의 수입차 신규등록 대수가 500대를 넘어선 등 내수 침체와 불황 속에서도 외제차의 비중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5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의 수입차(공식 회계사 기준) 신규등록 대수는 93대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7월(62대)에 비해 50%(31대) 증가한 것으로, 올 들어 7월까지 누적등록 대수는 역대 최고치인 569대에 달했다.

광주의 수입차 증가는 수입차업체

의 지방시장 공략 강화와 실용성을 앞세운 경우모델 출시 등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광주의 경우 중저가 브랜드인 혼다와 폭스바겐의 올해 신규등록이 각각 전체의 29.0%(165대), 14.4%(82대)에 달했다. 고유가 기초 속에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실용성을 갖춘 소형차와 경유차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프리미엄 브랜드인 아우디(52대)와 렉서스(51대), BMW(44대) 등의 등록도 꾸준히 늘고 있어 고

유가와 불황 속에서도 고가 수입차 수요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 여수와 순천, 목포 등을 중심으로 올 상반기에만 271대의 수입차가 새로 등록되는 등 외제차의 비중이 매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전국의 경우도 비슷하다. 지난달 전국의 수입차 신규등록 대수는 역대 최대 규모인 6천462대에 달했다. 이는 6월보다 15.8% 증가한 것으로, 기존 월간 최대 등록대수인 지난 4월(6천153대) 실적을 석달 만에 또다시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수입차의 국내 누적등록 대수는 3만9천911대로, 전년 동기(2만9천855대)보다 33.7%나 늘었다.

브랜드별로는 혼다가 지난달에만

1천665대가 신규 등록됐으며, BMW(734대), 폭스바겐(716대), 메르세데스-벤츠(656대), 아우디(533대), 렉서스(502대) 등의 순이었다.

배기량별로는 3천~4천cc 미만 모델이 2천237대로 전체의 34.6%를 차지했고, ▲2천~3천cc 미만 31.8%(2천533대) ▲2천cc미만 26.5%(1천714대) ▲4천cc 이상 7.1%(458대) 등이었다.

한편 지난달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수입차 모델은 혼다의 '어코드 3.5'로 한 달새 818대가 신규등록됐다. 이어 BMW의 '528'이 334대 팔렸으며, 혼다의 '어코드 2.4'도 285대가 등록되는 등 혼다의 판매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최정호기자 choice@kwangju.co.kr



롯데백화점 광주점(점장 구수희)은 5일 8층 린트리브즈 매장에서 알몬드오일, 카렌듈라, 로즈힙의 과일 또는 플라워오일에 관능적인 바닐라 퍼퓸, 23K 골드를 혼합해 만든 바디오일제품 세트를 선보이고 있다. (롯데광주점 제공)

### 조달청 '나라장터'

### 연구논문 경진대회

광주지방조달청이 국민과 함께하는 나라장터(www.g2 B.go.kr) 연구논문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대회기간은 11일부터 오는 10월10일까지며,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논문주제는 ▲조달청의 기능강화에 따른 나라장터(장기)발전전략 ▲최신정보기술을 이용한 나라장터 발전방안 ▲나라장터 발전을 위한 법령 및 제도정비방안 등 총 6개로 이중 택일해 제출하면 된다.

논문 평가결과 최우수 논문상(1명)에는 500만원, 우수상(각 2명) 각 200만원, 장려상(4명) 각 50만원 등 모두 1천100만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조달청은 수요기관·조달업체 등 나라장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11~29일 문제풀이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종태기자 jilee@

## 지역 투자자 빈번한 '사고팔기'

### 주가 하락에도 거래량·거래대금 늘어

수·매도 횟수를 크게 늘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코스피지수와 코스닥지수는 미국증시 및 국제유가 불안 속에 외국인의 매도 공세가 이어지면서 한 달새 각각 4.79%(80.25P), 8.

60%(50.75P) 떨어졌다.

하지만 광주·전남의 주식투자자들이 전체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지난달 지역 투자자들의 주식 거래량과 대금 비중은 각각 1.66%, 1.47%에 그쳤다. 이는 부산(3.34%)·경남(3.08%), 대구(2.71%)·경북(2.30%) 등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한편 지난달 광주·전남 투자자의 거래 상위 5종목은 코스피의 경우 ▲STX판오션 ▲유진투자증권 ▲SK증권 ▲대우부품 ▲한신기계 등으로 나타났다. 코스닥은 ▲한국오발 ▲상협글로벌 ▲에임하이 ▲바른손 ▲큐리어스 등의 순이었다.

/최정호기자 choice@kwangju.co.kr

## 전남 수출 '빛났다'

### 고유가 등 악조건에도 석유화학·조선 업종 호황

### 상반기 전년대비 41% 증가한 141억달러 전국 2위

고유가와 환율상승 등 국내의 경제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전남지역 상반기 수출실적이 141억달러로 전국 2위를 기록했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무역협회가 집계한 시도별 수출실적 분석 결과, 올 상반기 전남지역 수출액이 141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99억5천만달러에 비해 무려 41.7% 증가했다.

이는 전국 평균 수출증가율 20.4%

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전국 16개 시·도중 제주(69.5%)에 이어 2번째이다.

기업별로는 대기업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3.1%나 증가한 113억달러로 석유·화학부문에서 초고유가 상승에 따른 수출단가 상승이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영암 현대삼호중공업이 선박수주증가로 21억달러를 달성, 지난해

에 비해 134%나 증가했다.

또 대한조선과 광성조선, 세광조선 등 선박류 수출이 21억달러로 147.5% 증가했다. 중소기업은 18.2% 증가한 27억9천만달러를 기록했다.

산업별로는 공산품분야가 전년 동기 대비 41.9% 증가한 140억달러 실적을 보였다.

반면 농수산물분야는 5천9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6% 감소했다. 이는 농수산물 주 수출국인 일본시장의 수입산 기피영향과 유가 급등에 따른 생산량 감소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윤인휴 전남도 경제통상과장은 "무역교류단 파견과 수출상담회 개최,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 등 다각적인 해외마케팅 사업을 추진해 올해 수출목표 260억달러를 조기 달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 마일리지 항공권 발권제

### 아시아나, 국내선도 적용

아시아나항공은 11월부터 현재 국제선에서 시행하고 있는 마일리지 항공권 발권 시한제도를 국내선에서도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제도는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예약하고 정해진 기간에 발권하지 않으면 예약이 자동 취소되는 제도로, 대한항공 등 국내외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시행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4월 국제선 마일리지 항공권에만 발권 시한제도를 도입했다.

국내선 마일리지 항공권 발권시한은 출발일 기준 30일 전 예약시 18일 이내, 15일 전 예약시 7일 이내다. 단 인터넷 예약은 예약 후 30분 이내에 발권까지 모두 마쳐야 한다. /연향스

## 그린벨트 해제지역 층수 제한 규정 폐지

### 행정규칙 94건 정비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업무 및 상업시설 층수제한 규정을 완화해 지역여건에 맞게 개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국토해양부, 법제처와 함께 이러한 내용의 국토해양부 94개 행정규칙 개선방안을 마련,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서 7층 이상 업무 및 상업시설 건축을 금지하는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을 이달 중 개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주거단지 전체 주택층수의 5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확보하거나 도서관, 문화회관 등 1개 이상의 편의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하는 등 개발이익을 공공에 환원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이 허용하는 범위까지 층수제한 없이 건축할 수 있게 된다. 또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내 300호 이상 또는 1천명 이상 거주취락, 기존 시가지 정비계획에 포함된 시가지 연접취락 등에 대해선 4층 이상 공동주택 건설을 허용키로 했다. /연향스

### 유자차 대량 수출

### 카자흐스탄에 11t

### 농수산물유통공사

광주·전남지역의 유자차가 지난해 소량에 이어 올해 카자흐스탄에 대량 수출하게 됐다.

AT(농수산물유통공사) 광주·전남지사(지사장 권운주)는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노력해온 결과 공공무역(대표 이재석)을 통해 카자흐스탄 현지업체와 11t의 유자차 수출계약을 맺고 지난 4일 처음 선적작업을 마쳤다.

광주·전남지사는 계약과정에서 시장조사비를 비롯해 샘플구입비, 운송·통관비, 해외홍보비 등을 지원해 왔다.

권운주 지사장은 "어렵게 성사된 계약인 만큼 유자차 수출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오는 9월부터 카자흐스탄 현지 매장에서 시식 등 다양한 홍보·판촉행사를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부자본 동원 현대 생활사업부** www.tnugood.com

## 아직도 고가의 온돌침대를 목돈으로 구입하십니까?

할부식 생활서비스 - 월평균 50,000원 - 60,000원대(무이자 36회 까지)

**보상판매실시** 온돌상침대를 구입 시 현재 사용하는 침대(메트릭스)를 보상판매

1년 만기 (완시판매)

TEL 062)961-9994

**한아름에탁금**

# 6.50%

1년 만기 (완시판매)

두 임 실험